

## 중국인 유학생만 7만명... 대학가, 피할 곳이 없다

격리 기간 고려해 이미 3만여명 입국  
 기숙사 태부족 학교마다 묘수 골머리  
 교육부, 1학기 휴학 권고 해보지만...

우리나라 교육기관들이 3월 봄 개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4일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최소 2주간의 격리기간을 고려해 조기 입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인 1실 등의 방법으로 격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현재 1인 1실 기숙사는 거의 없는 상황. 각 대학 뿐 아니라 전국이 초진장 상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입국장에 설치한 안내센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검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검역과 입국 절차를 모두 마친 유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한국생활 행동 요령을 전달받고 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중 3만여 명이 이미 국내에 있고, 개강을 앞두고 3월초까지 1만여명이 들어 올 예정이다. 이에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코로나 대응에 들어갔다.

중국인 유학생이 3800명으로 가장 많은 경희대는 교내에 설치한 간이진료소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일부는 1인 1

실의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생활하고,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는 유학생들은 각지의 거주지에서 자율 격리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두 번 째로 많은 성균관대는 교내식당 5곳 중 1곳을 빼고 모두 폐쇄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자기격리 키트 2천 개도 준비했다.

인천대, 배재대는 교직원들이 공항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태워 데려간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면, 방진복을 입은 직원에게 개인물품을 받고 입소한다. 개인 소독 절차를 거친 뒤 이곳 기숙사에서 1인1실로 2주 동안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중국 유학생 7만 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 8천여 명에 대해 입국을 늦추기 위해 수강 제한을 완화하고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 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학 기숙사에 1인 1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인 1



‘우한 코로나’ 확인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서초구 확진자로 추정되는 시민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현장응급의료소로 의료진과 함께 들어오고 있다. 사진=권창희 기자 jaykwon@meconomynews.com

실 구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밝혔고, 지방 대학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태. 인하대는 아예 1인 1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충북 청주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날짜를 조정해 100명씩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호남대는 커튼으로 방을 나눠서 한 방에 2명씩 수용할 계획이다. 부산 동의대는 교외 호텔을 이용할 계획이

다. 연세대는 중국인 유학생 격리를 위해 ‘기숙사 전원 퇴소 조치’를 내렸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대학은 매일 전화 등으로 학생들의 상

태를 점검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하면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권고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외출을 막거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가 주변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다수 오간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사는 “요즘 중국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마스크 사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학생들”이라며 “근처 원룸촌에 중국 학생들이 모여 산다고 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변의 또 다른 약국에는 중국어로 ‘마스크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여있기도 했다.

종로구의 편의점 사장은 “하루에 중국인 학생 90명 정도가 찾는 것 같다”며 “음식점과 달리 빨리 왔다가 나갈 수 있어 편의점을 더 많이 찾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데 얼굴을 거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고향에 다녀왔다고 하면 ‘집에서 꼭꼭 말고 있으라’고 하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쓰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 마트·백화점·극장 등 유통·서비스업 충격 가시화

인스타그램으로 본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전년 대비 반토막

사진 및 동영상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우리사회 전반의 소비활동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 2월 1일부터 24일까지 대형마트·백화점·극장·카페·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2019.2.2~2019.2.25) 대비 반토막 수준인 50.4%의 발생량을 보였다.

인스타그램은 SNS 채널 중 사진 중심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어 장소에 대한 방문기나 각종 상품에 대한 후기성 게시물이 많아 이를 통해 소비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다.

2019년에 비해 게시물수가 가장 큰 폭

으로 하락한 업종은 영화관으로 전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영화관과 관련된 게시물은 9만152건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3만3483건 발생하며 37.0% 수준에 그쳤다.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영화관 관련 게시물이 100건 올라왔다면 올해는 37건만 올라왔다는 의미다.

상영관별로는 ▲롯데시네마 관련 게시물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9년 같은 기간 관련 게시물은 2만486건이었는데, 올해는 6997건만 올라오며 전년 대비 34.2% 수준에 그쳤다. ▲CGV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장렬하기 시작한 초기에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며 가장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전년 대비 게시물수는 5만263건에서 1만8810건으로 감소하며 37.4% 수준을 보였다. ▲메가박스

는 2019년 1만9403건에서 2020년 7676건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39.6% 수

을 기록했다.

빅3 사와 관련된 게시물 분석한 결과 ▲신세계백화점이 전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인 47.9%를 기록했다. 작년 신세계백화점과 관련된 게시물은 1만6761건 발생하는데 반해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32건만 올라온 것이다. ▲현대백화점도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9%를 기록했다. 2019년 2만2869건에서 2020년 1만1413건으로 발생량이 감소했다. ▲롯데백화점은 2만1802건에서 1만1420건으로 감소하며 52.4% 수준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의 감소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 4곳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1.4% 감소한 58.6% 수준을 보였다. ▲스타필드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전년 발생량 3만2745건에서 올해 1만3021건 발생하며 작년의 39.8%에 그쳤다.

스타필드 역시 CGV와 마찬가지로 국

내 발생 초기 한 확진자가 방문했던 것으로 보도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가짜뉴스로 판명됐으나 인스타그램 분석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 사례의 경우 일요일마다 언급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하는데, 2020년 2월 들어 패턴이 사라졌다 16일에 다시 소폭 반등 이후 조사기간 최저점을 기록했다. 16일 반등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며 방문객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스타필드 방문객수가 전저점을 갱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필드에 이어 ▲롯데마트가 언급된 게시물은 전년 대비 59.4% 수준을 보였고,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각각 67.2%, 68.0% 수준을 기록했다.

정연수 기자 xiu0430@gmail.com

## 외식업체 90% “손님 확 줄어” 경기인천 순으로 타격

외식산업연구원, 600곳 조사

코로나19(우한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이 고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우한폐렴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전후 2주간의 고객 수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85.7%가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고객이 감소했다. 고객이 감소한 업체들의 평균 고객 감소율은 29.1%로 조사됐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방문 취식’ 고객이 감소한 업체가 87.3%, ‘포장 주문’ 고객이 감소한 업체가 57.8%, ‘배달 주문’ 고객이 감소한 곳이 37.5%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고객이 감소했

지만 배달 주문 고객이 상대적으로 덜 줄어 들었다.

지역별 고객 감소 업체 비중은 경기(93.2%)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70.7%)이 가장 적었다. 평균 고객 감소율은 제주(38.4%)가 가장 높았고, 경상(23.2%)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일식·서양식(90.5%)에서 고객 감소가 많았고, 치킨 전문점(69%)이 가장 적었다. 평균 고객 감소를 또한 일식·서양식(33.6%)이 가장 높았고, 치킨 전문점(16.7%)이 가장 낮았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업계 고객 수 감소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일선 외식업체의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 2020년 칸 라이언즈

### 비즈니스 성장, 엔진은 크리에이티비티다!

#1. Creativity is the Business Growth Engine

\_2020년 칸 라이언즈 메인테마 중에서.

**한국참관단 모집 : ~ 3월 20일 (금) 까지**  
 일정 : 6월 20일(토) ~ 28일(일), 7박 9일  
 비용 : 1,122만원 (VAT 별도)  
 참관단 패키지 : 페스티벌 등록, 항공, 숙박, 호텔 트랜스퍼, 웰컴파티, 프로그램 안내자료 등

**칸 라이언즈 출품 마감 : ~4월 16일 (목)**  
 www.canneslions.co.kr  
 webmaster@canneslions.co.kr, 02-757-1830

※ 선착순 마감되오니 자세한 일정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